부산 · 경남, 설날맞이 나눔행사 풍성

지역복지관 · 사찰 · 불교기관 등 백미 · 성금 등 소외이웃에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 경남에서 활동하는 불교계 복지관과 사찰 등 각 단체들이 새해 설날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풍성히 마련했다. 사진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해 명절맞이 나눔을 진행한 모습.

부산 · 경남에서 활동하는 불교계 복지관과 사찰 등 각 단체들이 새해 설날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은 1월 28일 설맞이 정(情)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해 설을 맞아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재가복지 대상자 211세대에 떡국 떡 및 과일, 사골곰탕 등 먹거리 후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해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받고 있다. (051)893-5034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1월 25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2층에서 제32회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신년하례를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나눔 행사는 1부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는 자비나눔과 2부 위안연 및 하례회를 진행한다. 이날 창원시불교연합회는 자비나눔 성금은 5000만 원과 성품을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금강 장학생, 독거어르신, 시각장애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이하 쿠무다)가 1월 17일 해운대구청 구청장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쿠무다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품기부 일환으로 백미 20kg 108포를 해운대구에 전달했다. 백미는 해운대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쿠무다는 "앞으로도 쿠무다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후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쿠무다는 1월 12일 신축 복합명상문화센터 지하 1층 공연장에서 영산재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창원 화개산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사**(주지 혜명)가 1월 19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자비의 쌀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전달되며 백미 150포(525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백미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 이웃을 위해 회향될 예정이다.

주지 혜명 스님은 "배고픈 이들이 없고 밝고 향기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1월 27일 복지관 내에서 '새해용품 전달식 및 합동차례상 차리기'를 진행한다.

이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총 1000세대를 대상으로 설날 떡국거리와 생필품 선물세트, 방역물품을 후원한다. 아울러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기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합동 차례상과 찾아가는 차례상을 지원한다. 차례상을 위해서 과일, 떡, 생선, 고기 전 등 차례 음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051)628-6737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광안노인복지관**(관장 손정환)은 설명절을 맞아 '정(情)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광안노인복지관은 설날 전인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100가구를 방문하고 직접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광안노인복지관은 선물꾸러미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금 및 식료품, 생필품, 방역물품 등 후원용품을 지원받고 있다. 모금 기간은 1월 21일까지이다. (051)715-6099



[인터뷰] 청수사 주지 계휴 스님

2006년 국립공원 내 창건… 맑은 기운 모이는 '청수' 의미
순국선열과 역사속 억울히 희생된 무주고혼 천도와 기도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 안심법문을 나누는 스님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산 청수사 주지 계휴 스님<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청수사는 예전 청수장으로 유명한 북한산 자락 국립공원에 위치한 소담한 사찰. 청수사의 '청수'(淸水)는 맑은 샘물이 있다는 의미다. 북한산 자락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함께 청량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기에 이름 붙여졌다.

계휴 스님이 청수사에 주석한 지는 16년이 됐다. 스님은 "국립공원이라 건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하지만 계곡을 타고 북한산 기운이 내려오는 곳이라 기도 성취가 잘되기에 터를 닦았다"고 설명했다.

이 곳에서는 1년에 한차례 나한대재와 산신대재를 지낸다. 특징은 두문동 72현을 비롯해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천도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 때는 사찰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영가들을 위해 사찰 외부에서도 상을 따로 차려 지낸다. 사찰 위에 자리한 나한전에서도 별도의 호국영령 나한기도가 이어진다.

계휴 스님은 "국난 속에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아무도 기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재를 지내기로 발심했다"며 "지금은 제사가 점차 자리 잡으며 후손들이 알고 찾아와 함께 국난극복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청수사에서는 우란분절 조상천도를 기원하며 6월 초하루부터 7월 15일 회향까지 일곱 차례 재를 지낸다. 축원문을 읽을 때는 여느 사찰과 달리 자손들에게 술과 과일 등 공양물을 영전에 올릴 기회를 준다. 음식 및 꽃공양을 매번 다르게 올리고 공양물도 정성을 기울여 다양하게 준비해 신도들에게 호응이 높다.

또한 청수사 법당에는 고려시대 국운융창을 기원한 팔관등도 걸려있다. 호국선열을 기리고 국난극복을 염원한다는 의미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스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충분히 이를 이겨낼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계휴 스님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오히려 오지 않을 것도 오게 됩니다. 해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춥다고 했는 말처럼, 춥다고 가만히 움츠리면 밝은 광명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은 또한 "비가 오는 날에 비가 와서 짜증난다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불쾌할 것"이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을 찾게 된다면 복은 저절로 온다"고 말했다.

계휴 스님은 앞으로 청수사를 자연 속에 숨 쉬는 치유의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고 바램을 털어놓았다. 그 대안으로 청수사 아래 작은 갤러리인 '청수 갤러리'를 만들었다. 또한 사찰 옆으로 나있는 북한산 둘레길을 활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연을 벗삼아 휴식을 취하고 명상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신도들을 지치게 하는 대형불사가 아닌, 지금 불편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함께 그대로 어우러지며, 신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찰로 가꿔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호월서희망재단 설맞이 자비나눔

이사장 월서 스님 1120만원 후원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은 1월 19일 공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2022년 설맞이 공덕동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120만원 상당의 김치도 후원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은 네팔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등 불교국가 저소득계층의 구호활동 및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월서 스님은 "우리미래인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부산, 대중공양 올려

동안거 법화경 독송수행 회향기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포교사단 부산)이 1월 20일 범어사에서 '2022년 동안거 법화경 독송 수행 회향'을 기념하는 대중공양을 올렸다.

포교사단 부산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70일 간 〈법화경〉 독송 수행을 이어왔다. 〈법화경〉 독송 수행은 동안거 기간 동안 지혜를 얻고 코로나로 자칫 침체될 수 있는 포교 원동력을 이어갈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법화경〉 독송 수행에는 포교사단 부산 지역단 단원 650여 명 40개 팀 전원이 동참했으며 릴레이로 매일 독송해 〈법화경〉 전권 10권을 독송했다.

독송기간 동안 포교사단들은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동참금을 후원하고 나눔과 대중공양에 동참했다. 대중공양에는 송재린 단장, 정분남 자문위원, 임한규 · 이양희 · 주태돈 부단장, 조봉례 남부총괄팀장, 김옥희 지역중앙총괄팀장 등 임원들이 동참했으며, 스님들의 동안거를 후원하는 영양 음식을 손수 만들었다. 공양 메뉴에는 겨울철 특식으로 찐빵과 짬뽕 등을 비롯해 김밥, 유부초밥, 과일 등 풍성하게 마련했다.



대중공양은 총 200인분을 마련해 스님과 범어사 사중에서 활동하는 모든 일반 소임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털신 150개를 증보 공양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취임

1월 17일 주지 이취임식 거행

창원 도심포교 효시인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1월 17일 대작불사 후 환희의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는 축원을 시작으로 반야심경 봉독, 삼귀의. 도문 스님 이임, 광우 스님 취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취임한 광우 스님은 인사말로 "말 보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정법의 가치실현을 보여 드리겠다"며 "신도 대중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고생하신 도문 스님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도문 스님은 이임사로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스님들과 함께 잘 할 걸 등 후회가 많다. 어디가서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열심히 정진하겠다"며 "코로나 기간 불사가 진행되며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았다. 새로운 주지 스님과 함께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우뚝 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날 취임한 광우 스님에게는 안미옥 신도회장이 축하꽃을 전달했으며, 이임한 도문 스님에게는 김선정 고문이 감사꽃을 전달했다. 또 도문 스님과 광우 스님은 손을 맞잡고 환영과 감사 인사를 나눠 정법사 대중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마일운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2년 3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이후 3월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